불교도 〉 마하보디寺院 싸고 분쟁 재연 〈 힌두교도

강제퇴거 4스님 단식투쟁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성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둘러싼 불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해묵은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다. 마하보디 사원에서 성직을 수행하던 4명의 스님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사원에서 밀려나게 됨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어서 이들 스님들은 '죽음에 이르는 단식'을 선언했다.

비하르 주정부는 단식중인 스님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료진의 보고에 따라 입원명령을 내리고 경찰을 투입했으나, 스님들은 입원을 거부했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스님들은 자신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이외에도 '마하보디 사원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장 깔리짜란 야다브(Kalicharan Yadav)씨의 전횡과 성지 내에서의 음주행위 등에도 저항한다고 밝혔다.

마하보디 사원 경내의 요사채에 기자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사무국장 야다브 씨는 이들 스님들의 해직과 퇴거는 이미 지난 11월에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해직시킨 데 대한 합당한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11월에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2개월 이상이 지난 올해 1월 중순에야 집행하려고 했던 점 등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결국 12일 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결과, 운영 위원회는 스님들 중 2명을 복직시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서로 자주 싸운다'는 이유로 몇 개월 간의 감시 기간을 거쳐 정식 복직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스님들의 복직은 이루어졌지만, 이는 표면적인 미봉책일 뿐이고, 마하보디 사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불교인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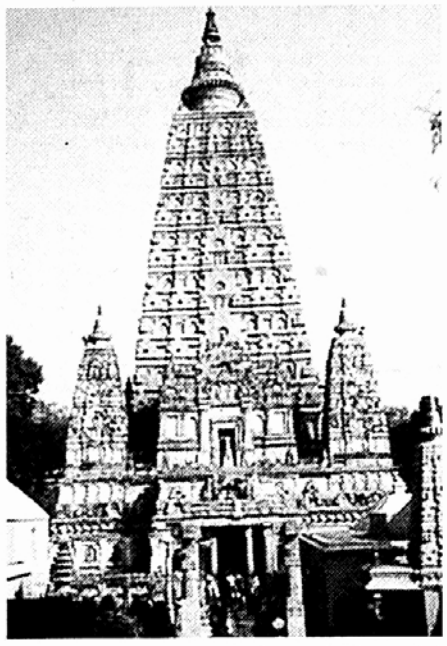
이번 스님들에 대한 야다브씨의 '실력행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은 그 근본적 이유를 사원의 운영권을 놓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불교도와 힌두교도 사이의 불협화음에서 찾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원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사원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8명의 운영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4명은 불교도 중에서, 4명은 힌두교도 중에서 임명되며, 위원장은 가야(Gaya)군 군수가 맡되, 군수가 힌두교도가 아닌 경우에는 비하르 주 정부가 힌두교도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힌두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운영 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힌두교도들이 마하보디 사원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지를 순례하는 전 세계의 불자들이 내는 엄청난 액수의 보시금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인도 불교계는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이미 세계종교로 성장하여 힌두교와는 무관한 별개의 종교이며, 세계 불교도의 성지에 자리잡고 있는 불교 사원이 힌두교도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도 부다가야= 이지은 통신원

불교도 "불교성지 … 타종교 관리는 어불성설"

힌두교도 교리 내세워 "운영권 확보 문제없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인도 비하르주 부다가야에 위치한 마하보디 사원의 전경.

전일본불교회 새회장단 구성

전일본불교회는 지난 1월 31일 이사평의원회를 열고 이사장에 모리와끼유(森和久 · 사진 왼쪽) 조동종 의회의장, 회장에 오오야이 코우신(大谷光眞 · 오른쪽) 정토진종 본원사파 문주(門主)를 선출했다. 모리 신임 이사장은 1월 31일 취임회견에서 네팔 룸비니의 마야당 복원과 종파간의 화합을 역설했다. 오오야이 회장은 일본불교가 세계적인 문제와 일본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세계평화 기원의 종 타종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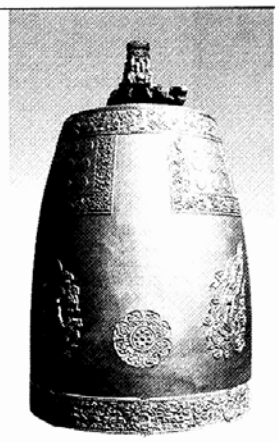
日 고려사, 내달 7일 월드컵 성공 기원도

◇태연 스님

일본 교또(京都) 고려사가 4월 7일 세계평화기원의 종 타종법회를 봉행한다. 종각 낙성법회를 겸해 봉행되는 이 타종식에서는 한일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영산대재와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20여년만에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한국의 종장 원광식씨가 제작한 이 종은 새천년의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중량이 2001관이다.

고려사 관장 태연 스님은 "이번 평화기원의 종 타종식은 세계 평화와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염원을 공고히 하고 전쟁(제2차대전) 희생자 추모 및 유골의 인도적인 송환에 관한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476-7301 임연태 기자



◇'세계평화 기원의 종' 모델.

만문대장경 200년만에 인경

북경 고궁박물관, 20질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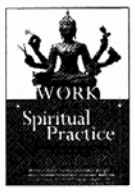
중국 북경고궁박물원이 청대 조판인쇄기술을 대표하는 〈만문대장경(滿文大藏經)〉을 오는 8월부터 인경한다. 중국 국가문물국의 비준을 얻어 시행되는 이번 인경작업은 200년만에 전통기법 그대로 재현되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0질의 대장경을 인쇄한다.

〈국어(國語)대장경〉으로도 불리우는 〈만문대장경〉은 699종의 불교경전, 24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790년(건륭 55년) 판각되었으며, 청대 〈사고전서(四庫全書)〉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문화적 걸작으로 평가된다.

북경고궁박물원은 200여년동안 정리, 복원되지 않은 원본 경판을 전면 보수, 보전처리한다.

해외불서

• 21세기는 지혜의 시대: 인류 최고의 유산인 철학의 지혜와 고타마 붓다의 지혜를 비교해 지혜를 닦는 방법을 말한다. 제1부 '지혜의 학문 철학'에서는 지혜를 테마로 한 학문과 종교, 필로소피아의 의미, 기원전 6세기 철학의 시대, 철학의 시조 탈레스와 헤라클레이토스 등을 다루고 있다. 제2부 '아함(阿含)불교-지혜의 종교'를 다루었다. 모리야마(桐山靖雄) 지음, 일본 평하(平河)출판사 펴냄.



• 수행하듯 일하라(Work as a Spiritual Practice): 경영인이자 선불교 마스터였던 루이스 리치몬드(Lewis Richmond)가 일에서 내적인 성장과 만족을 추구하는 불자들의 생활수행법을 소개했다. 저자는 어떻게 일상에서의 정신적, 정서적인 경험을 갈등, 영감, 성취, 침체 등으로 분류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미국 Booadway Books 펴냄.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4. 연화왕생이란

불교 상징하는 연꽃

정토왕생 해탈 희구투영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혼탁한 진흙과 오수 속에서도 청정무구한 꽃을 피우는 연꽃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지혜의 꽃을 피우는 보살의 깨달음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연꽃은 단지 미려한 자태를 가진 꽃으로 만이 아니라 번뇌와 고난을 극복하고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는 불교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꽃이다. 또한 연꽃은 〈묘법연화경〉의 연화가 의미하듯이 대승적 이념의 상징이며 인도와 서역, 중국과 한국과 같은 불교문화권에서는 미(美)의 정점을 의미하는 예술적 주제로 사용되어 왔다.

정토불교에서는 보다 종교적인 의미로 연화왕생(蓮華往生)을 설한다. 즉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에서는 중생이 정토에 왕생할 때 연꽃을 통해서 왕생한다고 설한다.

그렇다면 연화왕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연화왕생은 정토왕생의 방식이다. 연화왕생이라는 주제는 정토 경전뿐만 아니라 여러 대승경전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묘법화경의 제바달품을 듣고서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혹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의 부처님 앞에 태어나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듣고 만약 인간과 신으로 태어난다면 미묘한 즐거움을 받아 부처님 앞에서 연화왕생한 것과 같다"라고 적고 있다. 같은 연화왕생이지만 〈무량수경〉에서는 "칠보(七寶)로 된 연화 속에 자연히 화생하여"라고 더욱 화려한 문구로 정리한다. 더욱이 범본 〈관무량수경〉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연화의 내오(內奧, 안쪽)에 있는 주소(住所)에 결가부좌를 하고 아미타불국계변(阿彌陀佛國界邊)의 칠보성(七寶城) 가운데 있는 칠보지(七寶池)의 연화 속에 화생한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여기서 연화의 내오에 있는 주소는 범어 파드메수 그라브하바삼(padmaesu garbhāvāsam, 紅蓮內의 胎藏)이다. 이 말은 연화의 내오(內奧)에서 복업이 성숙해야 정토에 화생한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러나 한역 〈무량수경〉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과감히 생략하면서 '자연화생(自然化生)'이라는 즉득왕생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다. 즉 자비와 지혜의 완성을 의미하는 연화의 순진무구한 청정을 정토에 왕생하는 중생의 청정한 행업과 일치시키는 표현이다.

연화왕생에도 즉각적인 자연화생과 합화왕생(含華往生)이 있다. 〈무량수경〉에서는 태생과 화생에 의한 연화왕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설한다. 즉 "만약 어떤 중생이 밝은 믿음으로 불지(佛智)와 승지(勝智)를 얻고 여러 공덕을 지어 신심으로 회향하면 모든 중생은 칠보화중에 가부좌하여 잠깐 사이에 진실보토(眞實報土)에 자연화생한다. 모든 공덕을 닦아 정토에 왕생했으나 의혹심이 있으면 정토의 변지궁전(邊地宮殿)에 핀 연화 속에 태생으로 왕생하여 합화(含華)된 채, 오백세 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경법을 듣지 못하며 보살과 성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멀리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조선시대에 그려진 구품탱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연꽃이나 반쯤 핀 연꽃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왕생자의 모습은 바로 합화왕생를 표현하고 있다.

연꽃에서의 화생이라는 주제는 불교 고유의 것이 아니다.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헌에서도 이 주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회화가 발견되고 있으며 인도의 힌두이즘과 중국 도교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불교적 전생관(轉生觀)을 반영하는 연꽃 연화왕생도 예불도 비천 승려도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화왕생이라는 불교적 주제는 수없이 그려낸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꽃인식은 태양, 여래, 정토, 불교적 해탈이라는 신성한 주제를 상징하고 있어서 한민족의 원초적인 불교이해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천5백년도 전에 축조된 고분에 진홍색의 눈부신 연꽃을 방안 가득 벽화로 그려 넣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담긴 인생과 불교는 무엇이었을까.

▩경학회 회주

시찰에서 지내실 분

노후의 삶을 산세좋고 물좋은 사찰에서 불사하시는 공덕지으시고 스님들과 함께 기도 정진하면서 부처님품에서 보람되고 가치있는 노후를 회향하실 분은 연락하십시오.

아울러 정신적 질환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 소외된 삶에 지치신 분들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소생하시어 참 불자 되실 분들은 연락 하십시오.

02)998-1818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지이체,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펌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리시스넷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회주시면 〈뇌파인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디로그를 무상제공합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생식마을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보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한방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 좋습니다.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 완료 현미, 해주홍,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계일, 팜프리, 감잎, 뽕잎,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호박맥가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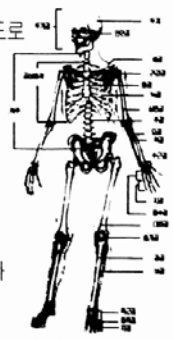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